



나지완, 야구에 눈뜨다

KIA 타이거즈 확실한 4번타자 자리매김 “올해 꼭 우승하고 내년에 군대 가고 싶다”

야구에 눈 뜬 나지완이 4번 타자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의 올 시즌이 심상치 않다. 넥센과의 개막전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5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개막전 8연패를 끊어냈고, 4월 1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시원한 끝내기 안타로 12회까지 이어진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등 나지완은 3차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16일 LG와의 경기에서는 3-1의 팽팽한 승부에서 2타점 2루타를 때려내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KIA의 4번 타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활약을 나지완의 절실함과 노력 그리고 야구 재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순철 수석코치의 평가는 “야구에 눈을 떴다”다.

이 수석코치는 “지난해부터 야구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재미있어 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불었다”며 “상체 위주의 스윙이었다면 지금은 하체를 사용하고 있다. 몸쪽 공의 경우 팔뚝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체를 사용한 힘찬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스스로 깨달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깨달으면 밀고 당기



고, 완급 조절을 하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른팔”이 기술적인 발전의 키워드다. 나지완은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오른팔’을 자주 언급했다. 오른팔을 몰아붙이는 과정을 통해 끝까지 스윙이 나온다. 작은 변화지만 간결하고 강한 스윙

으로 큰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야구의 재미와 함께 절실함도 나지완의 변화에 불을 붙였다. 지난 겨울 나지완은 군(軍)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대졸 출신의 나지완은 1983년 생으로 군복무가 발등의 불이다. 잔류를 놓고 구단 관계자와 마찰을 빚으며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방향이를 틀었다. ‘마지막이다’는 각오로 야구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 외적인 부분의 노력도 가미됐다. 개막전에서 4번 타자 중임을 부여받은 뒤 나지완은 가장 먼저 기록분석실을 찾았다. 비디오통해 자신의 플레이와 상대 투수를 분석하면서 머릿속에 경기를 미리 그려보기 위해서였다. 매번 타석에 들어설 때도 상황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지완은 16일 적시타 상황에 대해 “4번 타자다운 자신감 있는 스윙을 하려고 주문하신다. 그래서 자신있게 내 스윙을 하고 있지만 주자가 있던(1사 2-3루) 찬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진만 먹지 말자, 공을 맞추자는 생각으로 승부를 했다. 주자를 불러들여야 해서 바깥이름 짧게 잡고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나지완은 “팀의 4번 타자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4번째 치는 타자라는 생각으로 타순에 연연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다시 꼭 우승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사구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껴두겠어=타격 부진으로 계속해서 특타를 했던 김원섭, 17일에는 특타를 하는 대신 힘을 비축하기로 했다며.

▲다 슬라이더야. 못 잡겠어=캐치볼을 하면서 계속 공을 놓치던 김선빈, 캐치볼 상대인 볼보이가 슬라이더를 던진다며.

▲입장 바꿔 생각해 봐=나지완의 사구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 고의성은 없어보이는 했지만 공에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느냐면서, 나지완은 16일 두 번째 타석에서 리즈의 공에 맞았다. 나지완과 리즈의 신경전으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요즘 나지완 없으면 안 돼=공에 맞는 곳은 관중야고 물론 선동열 감독, 나지완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웃으면서.

▲다 속았죠=16일 4회 2사3루에서 포수 차일목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아 스타트를 끊은 주자 문선재를 잡아낸 양현종, 사인 미스로 실수를 할 뻔했다면서, 투수가 잡는 사인인 줄 모르고 공을 받고 당황해서 경기 끝나고 많이 혼났다는 말을 덧붙이며.

▲기 빠져서 못 치시는 것 아니야=홍재호, 새 방망이를 들고 LG 덕아웃으로 향하는 이법호를 보고, 선수들에게 방망이 선물을 많이 하는 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안타를 때린다며.

▲착해도 너무 착해=홍재호의 얘기를 들은 김선빈, 이법호 선배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 못한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KIA 선동열 감독, 불펜 한 발 빠른 교체로 효과

KIA 선동열 감독의 불펜 운영 우선 원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다. 자신의 원칙대로 선 감독은 한발 빠른 투수 교체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도 선 감독의 빠른 교체 카드는 적중했다.

2-1의 승부가 벌어졌던 6회 1사 1-2루. 정주현과의 승부에 나선 선발 양현종이 초구 스트라이크에 이어 볼 두 개를 연달아 던지면서 볼카운트가 2B-1S가 됐다. 이미 승부가 시작된 상황이지만 선 감독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곧바로 최향남을 마운드에 투입했다.

최향남은 불에 이어 헛스윙을 유도한 뒤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으면서 역전의 위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 선 감독은 17일 “양팀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경기였다. 1점 차의 박빙의 상황이었고 사실 계속해서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고 웃으며 최향남을 긴급 투입했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빠른 교체를 강조하는 선 감독이지만 올 시즌 한 차례 꺼내들었던 교체 카드를 집어넣었던 경우가 있다. 지난 1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이다. 그 경기도 1점 차 승부 투 아웃 상황이었다.

8회 2사에서 선발 소사가 김현수를 중전안타로 내보냈다. 투수 교체 수순이었



선동열 감독

지만 마운드에 올라갔던 조규제 코치는 벤치의 사인을 받고 빈손으로 내려갔다. 강판 위기의 소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마무리 앤서니가 등판했다.

선 감독의 설명은 “소사의 표정을 보니 너무 던지고 싶어해서 그냥 됐다”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끼리 감독’의 눈물

13연패 끊은 한화 김응용
“오늘 승리 평생 잊지않겠다”

“울지마! 울지마!”

NC 다이노스를 6-4로 따돌린 뒤 감독 인생 처음으로 헤드셋을 쓰고 방송사 중계 인터뷰에 응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김응용 감독의 눈가가 촉촉해지자 1루 한화 팬들이 “감독님 멋있어요”라며 힘을 북돋웠다.

‘백전노장의 승부사’, ‘우승 청부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코끼리’ 김응용(72) 감독이 힘겨웠던 13연패를 끊고 눈물을 보였다. 한국시리즈에서 10차례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해태·삼성 감독 시절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여러 심성을 특유의 과격하고 행동으로 감춰왔던 김 감독의 눈물은 야구팬에게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냉철한 승부사로 야구계를 지켜온 거목도 삼성 사령탑이던 2004년 10월 4일 이후 3117일만에 맞은 승리의 감격 앞에서 잠시 눈물이 핑 돌았던 모양이다.

물러든 기자인터파에 놀란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이긴 것 같다”며 멍뭇은 웃음을 지었다. 화제를 뿌린 눈물에 대해 짐짓 모른체 하던 그는 이내 “울만 했다”며 너털웃음을 보였다.

“롯데와의 개막 2연전에서 마무리가 무너진 다음부터 계속 경기가 꼬였잖아.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플레이가 속출했고, 오늘도 1회에 그런 수비가 나와서 한 점도 안 줄



16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한화와의 경기, 한화 김응용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것을 3점이나 주면서 속 많이 났지. 그런데 곧바로 우리 타선이 따라붙고 김태균이 역전 홈런을 터뜨려 이겼다. 송창식이 끝까지 잘 막아줬고.”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승리로 프로 통산 1447승째를 챙긴 김 감독은 “그동안 너무 많이 패하면서 ‘이게 야구구나’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며 “오늘 승리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승리로 앞으로 꼬인 경기는 덜 치를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감독은 “그동안 우리 팬들에게 제일 미안했다”면서 “선수들이 참 열심히 훈련했는데도 이기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스러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13연패의 나락에서도 비난대신 따뜻한 응원으로 기를 살려준 한화 팬들에게 뒤늦게나마 시큰 첫 승리로 보답한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승리를 확정할 순간 여러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친 듯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스스로 사발도 하고 참 열심히 연패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감독이 잘못해 경기에서 지는데 선수들이 고생했다”며 승리의 기쁨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연합뉴스